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8월 2일 화요일 (음 6월 30일) 제161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무술문화교류로 유커들 끌어모은다

(중국 관광객)

9일 한·중 무술문화교류축제 도, 전북·태권도원 관광객 유치 증대 일한

태권도 체험 중심 양국 문화공연 등 추진

전북도가 추진하는 '2016 한·중 무술문화교류축제'에 중국 관광객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10개월여 앞두고 태권도를 테마로 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태권도 성지, 전북'을 널리 홍보해 전북과 태권도원의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

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방한외국인 관광객 순위 1위 국가이자, 태권도 수련인만 3,000여만 명에 달하는 태권도 최대 시장인 중국을 타겟으로 한·중 양국 참가자의 공동 수련 활동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한국과 중국의 문화공연을 관람하며 양국을 이해하는 자리로 운영된다. 태권도 체험을 중심으로 7일간에 걸쳐 총 3차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북경, 상해, 청도, 항주, 남경 등지에서 총 2,100명(화차별 700명×3회)이 방문하며, 여행사를 통한 중국인 관광객 2,000여명도 한국마을 등과 연계된 관광 상품을 통해 무주를 찾게 될 예정이다. 축제 개막식이 열리는 10일 송하진 도지사와 김성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안호영 국회의원, 김종 문체부 차관, 황현 전북도의회위원장, 정청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세계태권도연맹 명

예부총재, 오현득 국가원장 등이 참석해 태권도와 관련된 국내 최대 행사를 빛낼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개막 선언에 맞춰 송지사를 비롯한 주요내빈과 태권도복을 입은 200여명의 중국 태권도 교류단을 포함한 약 1천명의 관람객이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펼쳐 축제의 흥을 더할 계획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태권도인들이 함께하는 태권도원 프로그램(태권체조, 발차기, 격파 등)을 비롯해 축하공연이 열리는 10·12·14일에는 전북도립국악원, 익산시립풍물단과 문화포럼 '나리레'의 퓨전국악공연, 태권도 시범공연 등 한국문화공연과, 동양 무술무예 공연단의 우수 공연, 차이나 매직의 변검 쇼 등 중국 문화공연이 열려 다채로운 볼거리가 제공된다. 또한 문화공연 후 중국 내 한류를

감안한 K-POP 가수 초청 공연이 이어져 방문객들의 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무술문화교류 축제는 태권도원 이외 도내 주요관광지, 숙박, 식당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이번행사에 참여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은 태권도원 숙박뿐만 아니라 태권도원 외 숙박, 주요 관광지 방문 및 체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약 10억여 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도 문화체육관광국 김인태 국장은 "태권도원은 우리 도가 보유한 특수적인 관광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라며 "축제기간동안 태권도원에서는 물 서머 이벤트와 물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방학을 맞아 가족 및 일반 관람객들도 좋은 추억을 쌓아도 좋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무주=전문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지역발전의 대안인론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사세 확장에 힘입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널리 모집합니다. 작지만 강한 신문은 표방하며 지역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전주매일에서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 자세를 겸비한 인재들 아래와 같이 초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격 조건
취재지(경력·수습)	본사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 접수기간 2016년 8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4층
문의전화: 063-288-9700(본사 총무팀)
e메일: jjmaeil1@hanmail.net

전주매일

계속된 고온현상... 지난달 폭염·열대야 자주 발생

평년보다 일수 많아 강수량·일수는 적어

지난달 계속된 고온현상으로 열대야와 폭염이 평년보다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7월 전국평균 폭염 일수는 5.5일로 평년(3.9일)보다 많았다. 이는 8월 전국평균 평년(5.3일) 수준으로 서울·경기도, 강원영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7월 전국평균 열대야 일수는 4일로 평년(2.3일)보다 1.7일 많았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으로 무더웠던 19~31일(3.8일)에 집중됐다.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인 1973년 이래 7월 전국평균 열대야 일수 6위를 기록했다. 1위는 1994년(8.9일)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해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 특히 제주에서는 14일(18~31일) 동안 계속됐으며 광주 9일(23~31일), 부산·포항·목포·여수·창원 등은 8일(24~31일), 서울은 7일(21~27일) 동안 지속적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7월 1일 남부지방은 포항에서, 중부지방은 7월9일에 강릉에서 첫 열



폭염 피해 양계농가 방문 1일 도내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효되는등 연이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김일재 행정부지사가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정읍시 감곡면 김모씨 농가를 방문해 위로의 말을 전하고 방역물품들을 전달하는등 현장방문을 갖고 있다.

대야가 찾아왔다. 지난해에는 7월10일에 서울, 인천, 목포, 정읍에서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지난달 전국 평년기온은 25.4도로 평년(24.5도)보다 0.9도 높았던 것으로 관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반에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과 고기압 가장자리에 자주 들어 따뜻한 남서류

가 유입됐으며 후반에는 무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7월의 전국 강수량은 299.8mm로 평년(289.7mm)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6월 동안 주로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했던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했으며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지난달 1~6일 222.6

mm의 전국강수량을 기록, 7월 평년 강수량의 77%에 해당하는 비가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반에 장마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으나 후반에는 장마전선이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많았다"며 "남부 지방 중심으로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평년보다 적어 지역별 강수 편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 누가 선두 달리나?

새누리 '이정현' 더민주 '추미애'

양 당 각각 무응답 30%대로 부동층 향해 막판 변수 될 듯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이정현, 추미애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전국 유권자 1,22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결기(RDD)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친박 이정현 후보가 25.3%로 1위를 달렸다. 이어 원조친박 한선교 후보가 18.0%로 2위를 달렸다. 비박계 정병국 후보는 10.4%로 3위에 그쳤고, 범친박 이주영 후보는 9.7%로 4위에 머물렀다. 주호영 후보는 5.6%에 그쳤다. 하지만 무응답이 31.0%로 부동층의 행배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정현 후보는 ▲남성(30.2%) ▲50대(29.5%) ▲60대(30.7%) ▲대구/경북(38.6%)을 주 지지층으로 하고 있었다. 한선교 후보는 ▲여성(22.7%) ▲서울(23.0%) ▲경기/인천(23.4%) ▲전업주부(28.0%) 등에서 우위를 보였다. 더민주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는 추미애 후보가 23.5%로 1위를 달렸지만 송영길(20.5%) 후보와는 오차범위내였다. 이어 김상곤 후보 15.0%, 이종걸 후보 10.4%로 조사됐다. 더민주 역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부동층이 30.7%나 됐다. 추미애 후보는 ▲여성(25.4%) ▲19/20대(24.6%) ▲30대(23.3%) ▲50대(25.2%) ▲서울(28.2%) ▲호남(22.4%) ▲화이트칼라(27.5%) 등에서 선두를 달렸다. 송영길 의원은 ▲남성(22.0%) ▲40대(26.6%) ▲부산/울산/경남(27.6%) ▲지역(28.5%)에서 우위를 나타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민주 30.6%, 새누리 29.7%로 양당이 초빙빙세였다. 국민의당은 15.7%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8%p다(응답률 6.9%).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 메일 INDEX 3면 더민주도당 당직자들 '동네북'

전라북도 |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